

확 바뀐 교양교육과정, 내년부터 시행

2019학년도 교양교육과정 개편 내용

17학번 이후 교양 졸업 이수 학점

17학번 이후 교양 졸업 이수 학점

구분	목표역량	교과목	이수 학점 ¹⁾	비고
필수 교양 (14학점)	창의융합 역량	상상력 이노베이터	2학점	
	공동체 역량	사고와표현1	2학점	
		사고와표현2	2학점	
	글로벌 역량	영어커뮤니케이션 독해 - 작문	2학점	
		영어커뮤니케이션 청취 - 회화	2학점	
	특성화 역량	소프트웨어의 이해	2학점	
디자인		2학점		
토대 교양 (8학점)	진로설계 역량	살과 꿈	2학점	
	기초학문 역량	트랙기초과목	6학점	이수 트랙의 트랙기초과목은 전공으로 인정
자율 교양	핵심역량	핵심역량별 개설 과목	자율	- 융복합교양, 기초교양 - 인재상 핵심역량
합계			*22학점 이상	

* 개편안과 비교가 용이하도록 본문에서는 총 22학점 중 추후 전공으로 인정되는 트랙기초과목 6학점을 제외한 16학점을 최소 이수 학점으로 산정함.

2019학년도 교양교육과정 개편안

19학번 이후 교양 졸업 이수 학점

구분	목표역량	교과목	이수 학점	비고
필수 교양 (14학점)	공동체 역량	사고와표현1	2학점	
		사고와표현2	2학점	
	글로벌 역량	영어커뮤니케이션 독해 - 작문	2학점	
		영어커뮤니케이션 청취 - 회화	2학점	
	특성화 역량	소프트웨어의 이해	2학점	
		디자인	2학점	
소양 교양 (4-7학점)	진로설계 역량	*살과 꿈	2학점	
	창의융합 역량	*상상력 이노베이터	2학점	
	공동체 역량	사회봉사와 심신수양 분야 교과목	12학점	소양교양 중 사회봉사와 심신수양 영역과 핵심교양 3개 영역 (총 4개 영역) 중 3개 이상 영역에서 1과목 이상씩 총 12학점 이상 필수 선택 (배분이수)
핵심 교양 (12-9학점)	핵심 역량	인문학 분야 교과목 사회과학 분야 교과목 자연과학 및 정보기술 분야 교과목		
자율 교양		자율교양 과목	자율	
합계			28학점 이상	

* 필수교양과 소양교양 중 2과목(살과 꿈, 상상력 이노베이터) 그리고 핵심교양은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양으로 지정된 '이수 학점' 이상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대학본부가 교양교육과정을 새로 편성했다.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영어커뮤니케이션', '사고와 표현' 등 8개 교양과목에서 총 16학점만 이수하면 되는 지금과 달리, 19학번부터는 기존 16학점에 신설 교양과목 12학점을 추가로 이수해야 한다. 추가된 12학점은 새로 개설되는 ▲사회봉사와 심신수양 분야 ▲인문학 분야 ▲사회과학 분야 ▲자연과학 및 정보기술 분야 중 3개 분야 이상을 선택해 이수해야 한다. 단, 분야마다 1-2과목만 수강할 수 있다.

신설된 4개 분야는 기존 과목을 재배치하거나, 다른 영역과의 균형을 고려해 과목 수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사회봉사와 심신수양 분야에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오리엔티어링', '무용의 이해' 등 예체능 과목이 편입되며, 서예와 그림일기 과목 등이 신설된다.

교양교육과정 개편 배경에 대해 김지호(상상력교양교육원) 팀원은 "학생들의 취업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양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동시에, 학생들이 인문학, 자연과학 등

다양한 학문도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한"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상상력교양교육원은 교육과정 개편 방향을 잡기 위해 작년 11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산하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이하 교기원)에 교양교육과정 컨설팅을 의뢰했다.

컨설팅 결과, 교기원은 우리대학에 '전공성 교양' 배제, 교양 이수학점 증가 등을 권고했다. 여기서 '전공성 교양'이란, 교양과목의 제목이나 강의계획에서 전공과목의 성격이 드러나는 과목을 뜻한다. 예를 들어,

'경영과 리더십' 과목은 제목에서 경영학과 교과목 성격이 강하게 드러나 전공성 교양으로 분류된다. 상상력교양교육원에서는 교기원의 제안을 수용해 전공성 교양으로 판단되는 60개 교양과목의 과목명을 변경하거나 강의계획을 수정했다.

또한, 김 팀원은 교양 이수학점 증가에 대해 "교기원에서 전공과목 학점과 교양과목 학점 간의 균형을 맞추어 줄 것을 권했다. 그래서 현행보다 교양 이수학점을 12학점 늘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상상력교양교육원은 올해까지 개편안을 정비해 내년 1학기부터 시행하고, 이를 토대로 내년 7-8월 중 교기원에 심화 컨설팅을 받아 내용을 점차 보완해나갈 계획이다. 이에 대해 김 팀원은 "3주기 평가에서는 교양교육과정 내용을 평가한다고 한다. 앞으로 교양교육과정을 더욱 정비해 다음 평가 때 긍정적인 결과를 얻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희승 기자

yooningh@gmail.com

지면안내

보도

처우 개선에 나선
조교들의 속사정

02

사회

청년들은 왜 방에 갇혔나

03

문화

자꾸 포기하지 말고
다루하자!

04



사람사

파랑게 멎든 청춘,
삶의 끝에서 봄을 맞다

05



학술

'조각조각' 한글을
내 맘대로 잇다

06

오피니언

삼학승 · 한성포토저널 ·
#낙산세컷 · 의화정 ·
기자수첩 · 낙산에 올라

07

기획

총학생회,
지나온 길과 가야할 길

08





페이스북 페이지
@hansungpresscenter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hansungnews>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hansungnews



에브리타임 공식 계정
게시판 > '한성대신문사'

처우 개선에 나선 조교들의 속사정




조교

조교 처우 개선안

1. 고용안전 보장
2. 임금현실화
3. 조교의 지위 보장
4. 학교 구성원으로서의 권리와 복지 보장
5. 업무분장 요청

**근로시간 OK
나머지는 추후에...**



총무인사팀

지난 9월 13일, 우리학교 조교들이 자신들의 처우를 개선해달라는 '조교 처우 개선안(이하 개선안)'을 작성해 총무인사팀에 제출했다. 이에 대학본부는 현재(11월 19일 기준)까지 조교 대표들과 세 차례 만남을 가졌으나, 아직까지 근무시간 조정 안 외에는 답변을 보류하고 있다.

조교들이 개선안을 발의한 데는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 컸다. 2018년 최저임금이 상승하자 조교 계약 내용에 변경사항이 생긴 것이다. 최저임금이 오르기 전까지는 '주 5일 40시간' 근무로 계약했으나, 올해 최저임금이 오른 후부터는 '주 5일 35시간'으로 근무 시간이 조정됐다. 조교들이 문제 제기나 나선 것은 근무시간 조정이 조교와 대학본부 간 협의 없이 이루어졌다는 데 있었다.

이에 대해 강혜정(부동산학과) 조교는 "본래 계약이라는 것은 쌍방향의 하에 진행되는 것인데 조교 계약은 학교의 일방적인 통보로만 진행됐다"며 "합의 하에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강 조교는 총무인사팀에 관련 내용을 건의하기 위해 조교들의 의견을 수렴했고, 이를 토대로 개선안을 작성했다. 이에 총무인사팀은 희망자에 한해 11월부터 변경된 조건인 '주 5일 40시간 근무'로 재계약을 진행했다.

조교들이 제기한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앞서 언급한 근무시간 조정 안건 외에도 ▲고용안전 보장 ▲임금 현실화 ▲조교의 지위 보장 ▲학교 구성원으로서의 권리와 복지 보장 ▲업무분장 요청 등의 내용이 개선안에 포함됐다. 그중 고용안전 보장의 세부 항목에는 근태 관리 등이 있으며, 임금현실화의 세부 항목에는 '초과·야간 근무수당 지급', '연차 사용·미사용' 등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임수빈(기계시스템공학) 조교는 "학과 업무 중에 조교의 손이 미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 각종 서류 작업은 물론이고, 트랙 설명회 준비, 강의 시간 조율 및 시 간표 작성 등이 그렇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업무가 많아 초과·야간

근무를 했지만 별도의 수당을 받은 적이 없다"며 "야간 업무 시 다음 날을 휴무로 지정해주시기도 하지만 이마저도 학과장이 배려해주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라고 전했다. 학과 조교의 경우 추가·야간 수당을 받는 일은 없으며, 야간 업무를 하더라도 휴무를 보장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것이 조교들의 입장이다.

연차 사용·미사용에 관해 강 조교는 "부동산학과는 조교가 1명이다. 이런 상황에서 연차를 쓰게 되면 학과 업무에 차질이 생긴다. 이 경우,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면 임금으로 정산을 해야 하는데 이조차도 정산 받은 적이 없다. 해당 내용을 행정부서에 문의했으나 '개인이 시간을 내서 연차를 쓰는 수밖에 없다'는 답변만 받았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조교의 지위 보장에 관해서는 '인수인계 기간 필요'를 세부 항목으로 설정했다.

이에 강 조교는 "퇴직자와 신규 조교 간 인수인계 과정이 존재하지

않아, 계약 만료 때마다 문제가 발생한다. 행정부서에 연락해 모르는 것을 물어보면 담당 직원이 '몇 번이나 말해야 하나'며 짜증을 내는 일도 더러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학교와 싸우기 위해 개선안을 작성한 것이 아니다. 서로를 더 존중하고, 이를 통해 학교가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했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바람을 전했다.

조교 대표들과 총무인사팀은 11월 19일 현재까지 총 67일 동안 세 차례 걸쳐 회의를 진행한 상태이며, 138명 조교 중 59명이 개선안에 지지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총무인사팀은 개선안 안건 중 근무시간 조정 외에는 답변을 보류한 상태다.

이에 대해 장영우(총무인사팀) 팀장은 "현재 논의 중에 있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 다만, 개선 가능한 안건은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민 기자
whdals148@naver.com

#한성 #타임라인

제7회 외국인 한국어 뽀내기 대회 열려

지난 10월 27일, 국제교류원에서 주관한 '제7회 외국인 한국어 뽀내기 대회'가 낙산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본 대회는 '오감만족 한국! 한국어, 한국문화, 이것이 좋다!'를 주제로 진행됐다. 외국인 참가자들로 구성된 'A5'의 10개 팀이 참가했으며, 이들은 한국에서 겪은 다양한 경험을 그들의 시선으로 재해석해 발표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총장상과 특별상을 비롯해 ▲청산유수상 ▲일심동체상 ▲공감백배상 ▲각양각색상 ▲오감만족상 등 시상도 이뤄졌다. 대회에 참가한 11개 팀 모두 상을 받았으며, 그중 '카톡 친구'를 주제로 무대를 꾸민 'A5'팀은 총장상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이 자리에서 이상한 총장은 "우리학교는 인재상 중 하나인 '열린 세계인'을 육성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그 일환으로 매년 이 대회를 개최해왔다"며 "외국인이 한국생활 중 오감으로 느낀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이를 한국 학생들과 공유함으로써, 서로 이해하며 더불어 살 수 있기를 바란다"고 축사를 전했다.

김수현 기자 kshkajasa@naver.com

패션학부, 패션상품기획 콘테스트 입상

본교 패션학부 학생들이 '2018년 패션상품기획콘테스트'에 입상했다. 한국의류학회에서 주관한 이 대회는 미래 패션산업을 이끌 창의적 인재를 발굴하는 것을 목적으로 매년 개최된다. 올해는 전국 32개 대학 중 159팀이 참가했으며, 그중 7팀이 최고상인 '브랜드상'을 수상했다. 본교에서는 두 팀이 브랜드상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브랜드상을 받은 최혜원(패션 4)의 3명은 '프렐린' 부문에, 이진수(패션 3)의 4명은 '진도도피' 부문에 참가했다. 최혜원 외 3명은 프렐린 브랜드의 타깃 연령대를 이전보다 높게 설정해 캐주얼하고 트렌디한 디자인으로 재제정했다. 이진수 외 4명은 독특하면서도 과하지 않아 일상에서 착용할 수 있는 모피를 디자인했다.

최혜원 학생은 "팀원들이 모두 대회에 열심히 임해줘 이렇게 좋은 상을 받은 것 같다. 지도해주신 채진미 교수님께도 감사 인사를 드린다"며 소감을 전했다.

대회 출전 학생들을 지도한 채진미(글로벌패션산업학부) 교수는 "학생들이 방학 동안 대회를 준비하느라 많이 고생했는데 두 팀이나 브랜드상을 수상해 자랑스럽다. 이번 대회가 전국 단위로 진행된 만큼 이 상 역시 더 의미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명아 기자 mhbt0330@naver.com

교직과정 국제화 프로그램 특별 강연 개최

지난 11월 2일, 교원양성교육과정 이 미래관 ELC에서 '2018년도 교직과정 국제화 프로그램 특별 강연'을 열었다. 행사는 개회사를 시작으로 ▲교직과정 홍보동영상 시청 ▲주임교수 인사말 ▲강사 소개 ▲특강 ▲질문 순으로 진행됐다.

특강에 앞서 신재흠(교원양성교육과정) 교수는 "다문화 학생들이 우리사회에 온전히 녹아들기 위해서는 다문화에 대한 더욱 포용적인 사회적 인식 변화와 깊은 이해가 있어야 한다. 이번 특강은 다문화시대 교육에 대한 심층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고 기획 의도를 설명했다.



특강에는 박세훈(전북대학교 교 육학과) 교수가 초빙됐다. 박 교수는 "다문화시대와 교육의 과제를 주제로 강연했다. 그는 강연에서 "단약 다문화 학생을 가르칠 기회가 찾아

온다면 그 학생의 학교생활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 것인지 생각해볼 것"이라고 당부했다.

특강에 참여한 정재철(컴공 4) 학생은 "앞으로 이런 강연이 더욱

활성화되면 다문화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도 훨씬 넓어질 수 있을 것 같다"며 소감을 전했다.

김수현 기자
kshkajasa@naver.com

본교 커뮤니티 앱 '한담' 출시

우리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한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개발팀이 학우들에게 소통의 장을 제공하고자 커뮤니티 앱 '한담'을 출시했다.

한담은 '한성대 학생들의 담벼락'이라는 의미로, 앞으로 한담 앱을 설치하면 온라인으로도 강의평가를 작성 및 조회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앱은 학내 이슈에 대한 투표 기능도 갖추고 있다.

한담 제작에는 ▲서버 담당자 이민우(정보 4) 외 2명 ▲화면 담당자 신현수(정보 3) 외 4명 ▲디자인 담당자 이채리(ICT 2) 외 1명 ▲서비스 담당자 이순원(산공 4) 외 3명, 총 14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그중 원정은(사회과학 1) 학생은 "학내 구성원 간 소통이 활발해지면 학교와 학생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특히 수강신청 시 도움될 만한 강의나 교수님에 대한 정보를 다른 학우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었다"고 언급했다.

추후 한담에는 '게시판' 기능이 추가될 예정이다. 강의평가와 투표 기능으로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한담 프로젝트를 총괄한 안재성(산공 12) 졸업생은 "한담이 학우들끼리 자유롭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기연 기자 shell990824@naver.com

'왕산악 41주년 정기공연' 성사

지난 11월 9일, 홍익대학교 인근 클럽에서 '왕산악 41주년 정기공연'이 펼쳐졌다. 본교 밴드 동아리 '왕산악'이 주최한 이번 공연에는 왕산악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조직한 예비 밴드(테스토스테론), 1학년 밴드(헬로키티와 뽀요뽀요, 노잌컨셉, 여호수아), 2학년 밴드(나점지풍) 등이 출연했다. 이후 학년을 아우른 연합밴드의 특별 무대가 공연 말미를 장식했다.

이날 공연은 각 팀이 40분씩 곡을 연주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고요찬(역사 4) 왕산악 회장 외 4명으로 구성된 예비 밴드는 Muse의 'Feeling good', Jack White의 'Lazaretto' 등 총 5곡을 불렀다. 배수현(뷰티 1)의 9명으로 이루어진 1학년 밴드는 신해철의 '그대에게', 불불간 사춘기의 '여행' 등 총 6곡을 공연했다. 박소향(회화 2) 외 7명으로 구성된 2학년 밴드는 10cm의

'Perfect', 선우정아의 '빠빠어졌어' 등 총 7곡으로 무대를 꾸몄고, 여기에 최재희(한국어문 4), 조수아(한디원 1) 등이 보컬로 합류한 연합밴드가 Queen의 'Don't stop me now'를 연주하며 공연을 마쳤다.

1학년 밴드에서 키보드를 담당 한 송민주(인문 1) 학생은 "공연 준비 과정에서 시간에 쫓겨 힘들었지만 그 모든 시간이 이제는 추억이 됐다. 입단 후 첫 정기공연이었는데

잘 마무리돼서 보람차다"며 "다음 공연도 잘 준비해서 19학년 후배들이 우리 동아리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공연을 총괄한 고요찬 회장은 "공연을 준비하면서 분명 힘든 점도 있었지만, 무대에서만큼은 그런 것들을 다 잊고 하나가 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기연 기자
shell990824@naver.com

동정란

김창룡(크리에이티브인문학부) 교수
김 교수는 올해 상반기에 '한국의 명시가-별곡편' 및 '한국의 명시가-한시시조편'을 출간한 데 이어, 지난 10월 '춘향전 완본 84장본 열여섯항슈절가'를 출간했다.

공호근(융복합교양교육과정) 교수
공 교수는 지난 8월 '2018년 공인노무사 국가자격시험'에서 출제위원으로 위촉된 데 이어, 지난 10월 ▲2018년 서울시 9-7급 공무원 공채시험 면접심사위원 ▲2018년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서비스기관 심사평가위원 ▲2018년 서울지방우정청 경제 면접위원으로 위촉됐다.

청년들은 왜 방에 갇혔나

취업길 '턱' 막힌 청년, 대책 없이 '멍'한 정부

최근 아무 것도 하지 않은 채 시간을 허비하는 청년들이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이 15~29세 미취업 청년들의 주된 활동을 조사한 결과, '그냥 시간 보냄'에 응답한 사람이 2008년 23만 명(전체 응답자 중 약 15%)에서 2018년 29만 명(전체 응답자 중 약 19%)으로 증가했다. 미취업 청년 5명 중 1명은 구직활동도 하지 않은 채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는 셈이다.

이병훈(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단순히 사회 부적응자를 의미했던 은둔형 외톨이가 최근 한국 청년들 사이에서 자의가

아닌 타의로 인해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집안에만 틀어박혀 사는 사람들을 일컫는다. '그냥 시간 보냄'에 응답한 모든 청년이 '은둔형 외톨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 숫자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청년층 은둔형 외톨이가 양산된 원인에 대해 이 교수는 "청년기는 사회로의 진출을 준비하는 세대다. 그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은 청년들이 은둔형으로 전환됐다. 지속된 취업난에 수많은 좌절을 겪으며 사회 진출을

포기하고 집에서만 생활하는 은둔자가 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윤일규(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의 사회 시스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한국 청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과도한 경쟁에 내몰려 개성이 무시된 채 오로지 성과만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실패하면 낙오자라는 낙인을 찍어버리는 시스템이 원인"이라고 언급했다.

일각에서는 청년층 은둔형 외톨이 문제의 심각성을 경고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한 정부의 대책은 미비한 상태다.

윤 의원은 "이번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해 정부의 통계자료를 조화해 보니, 대략 21만 2천여 명의 은둔형 외톨이가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공식적인 국가 통계가 아니라 정확한 수치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전했다.

이처럼 청년층 은둔형 외톨이의 추정치만 갖고 있을 뿐, 정부 차원의 조사를 시행해본 적이 없어 공식 통계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정부는 현 상황에 대해 마땅한 대책도 마련해놓지 못한 실정이다. 지난해 서울특별시의회가 은둔형 외톨이를 지원(지원센터 설립, 직업훈련 등)하는 조례안을 제출했으나,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됐다. 이에 현재는 정부 차원의 지원이 아닌 은평구, 강동구 등 몇몇 개의 관내에서만 자체적으로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한편, 현 정부의 관련 정책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일부

지자체의 복지 프로그램을 제외하면 정부는 노동시장의 문제 해결을 위해 단순히 일자리만 지원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노동시장에서 실패를 맞은 사람은 패배감과 좌절감을 느껴 심리적 상처를 받기 마련이기 때문에 일자리 정책만 지원하는 것은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은둔형 외톨이의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심리치료, 활력 회복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 역시 "청년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각종 지원정책을 강화하고, 나아가 실패해도 빈곤에 빠지지 않도록 복지제도를 두텁게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자리만 늘릴 것이 아니라, 사회로부터 등을 돌린 그들을 좌절의 늪에서 구출해낼 수 있는 실질적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해외 주요국들은 우리나라와 달리 은둔형 외톨이의 실태를 조사하고 국가에서 관련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비교적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일본은 2010년부터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를 시작했고, 프랑스는 지난 10월 조사를 통해 정부 통계에 추산되지 않았던 청년 46만 명을 파악해내는 데 성공했다. 일본 정부는 67개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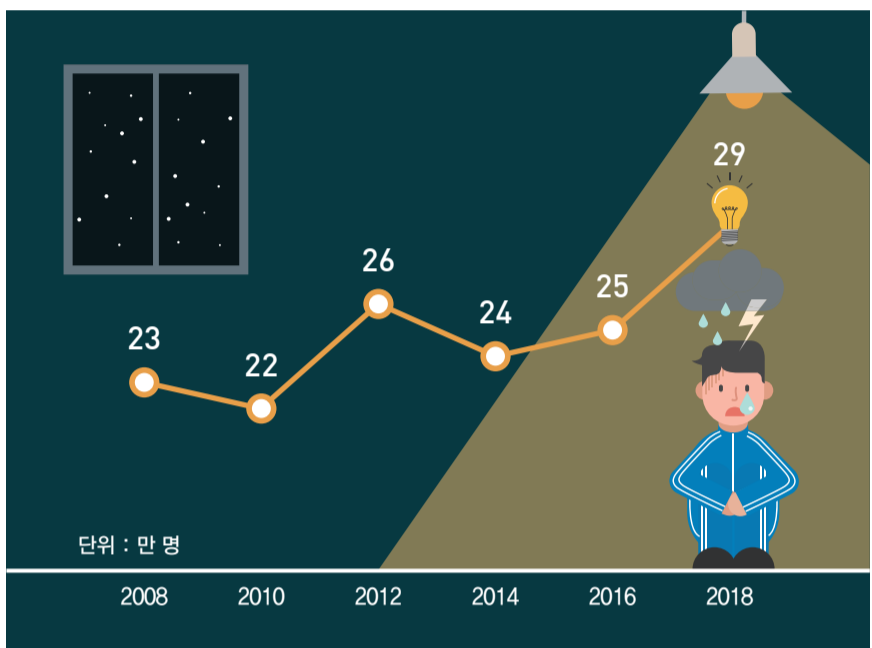


히키코모리(은둔형 외톨이) 지원센터를 설치했고, 유럽연합은 실질적 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운 청년 보장 사업인 'Youth Guarantee'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기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한국은 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크지만 정책적으로 볼 때 우선순위가 높지 않고 종합적으로 접근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그는 "해외 선진국들이 자라나는 세대에 대한 사회적 투자를 최우선 순위로 정해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의 사회적 투자 수준은 매우 미약한 상황이다. 이러한 부분을 향후 개선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장선아 기자

sun0913@hansung.ac.kr



▲지난 10년간 15~29세 미취업 청년 중 주된 활동 문항에 '그냥 시간 보냄'이라고 답한 응답자 추이 출처: 통계청

그늘진 문신에 별들 날 올까

사회적 인식은 나아졌지만 규제는 여전히

과거 문신은 '범죄자의 전유물'로 여겨졌지만, 최근 문신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면서 문신 시술을 받는 사람들의 수가 늘고 있다. 2015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국내 문신 피시술자는 100만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문신 피시술자가 늘어나면서 시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례도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접수된 문신 시술 피해 건수는 77건이며, 통증·염증 등의 '시술 후 부작용(55건)', 시술 도중 마취제나 문신용 염료가 눈에 들어가는 등의 '시술 중 부주의(16건)'가 주된 피해 유형으로 조사됐다.

현재, 우리나라 법에 의하면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로 간주돼, 현재 의료인이 아닌 일반 문신사가 행하는 시술은

불법이다. 『의료법』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면 의료시술은 의사 등 의료인만 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징역형과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문신 시술을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의료행위'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것이 미풍양속을 해치므로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문신 피시술자는 시술 과정에서 피해를 입어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문신 업계에서는 문신 시술 법제화를 촉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임보란(한국패션타투협회) 회장은 "이미 해외에서는 문신 시술이 법률화돼 있다. 우리나라도 관련

법률을 제정해 검증받은 문신사가 시술함으로써 피시술자가 문신 시술 시 피해 입지 않고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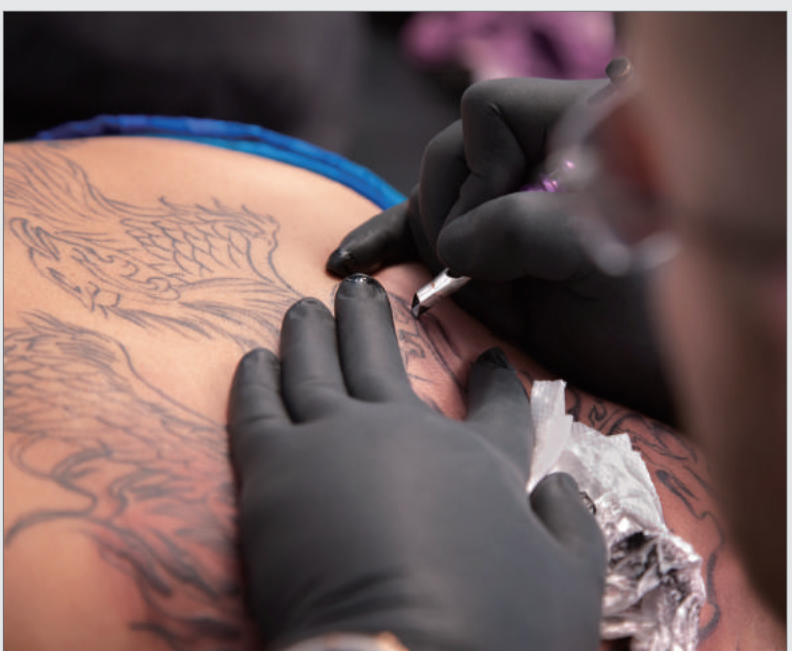
그의 말대로 해외에서는 이미 문신 시술이 합법인 상태다. 보건의료연구원이 2014년 발간한 『사회문신행위 실태 파악을 위한 기획연구』에 따르면, 프랑스·미국 등 주요 국가에는 문신 관련 법률이 마련돼 있다. 특히, 프랑스의 경우 보건부에서 문신사를 대상으로 한 이론 교육과 실습 교육 내용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미국도 미성년자 문신 금지, 시술 시 시술자가 피시술자에게 알려야 할 주의사항 등 문신 관련 법률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이에 국내 문신사 관련 단체와 일부 국회의원은 문신사 합법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패션타투협회 등 관련 단체는 작년 12월 헌법재판소에 소원을 제기했고, 현재 헌법재판관의 심리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한편, 국회에서도 문신 시술을 법제화하기 위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김춘진(새정치민주연합) 전 의원이 제17대 국회부터 제19대 국회에 걸쳐 문신사의 자격 등을 명문화해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신사 법안」을 발의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국회 임기 만료로 법안이 폐기되자,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제20대 국회에 관련 법안을 발의할 준비를 하고 있다.

윤희승 기자

yooinhg@gmail.com



심신미약 감형 "명확한 기준 없어"

지난 10월 14일, 전 국민을 경악시킨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이는 아르바이트생 신 씨(21)를 손님이었던 김 씨(30)가 칼로 수십 번 찔러 잔인하게 살해한 사건이다.

피의자 측은 "김 씨가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감형을 주장했고, 이와 관련해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심신미약 감형제도를 없애야 한다'는 청원이 제기되기도 했다.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국민청원에 지지 의사를 밝혀 이슈가 된 이번 사건은 지난 11월 15일 법무부가 "범행 당시 김 씨는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고 판결해 일단락됐다.

피의자 측에서 심신미약 감형을 주장한 사건은 이번만이 아니다. 2008년에 발생한 '나영이 사건'도 그렇다. 당시 피의자였던 조두순도 만취 상태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했고, 재판에서 이를 인정받아 징역 15년에서 12년으로 감형됐다.

'심신미약'이 어떤 것이길래 피의자 측에서 그토록 그것을 주장하는 걸까?

오경식(국립강릉원주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심신미약은 의학에서 사용되는 용어가 아니라 법률상 용어"라며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일반적 성인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를 뜻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재판 과정에서 피의자의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되면 『형법』 제10조 2항에 따라 반드시 형벌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피의자가 감형을 얻어내기 위해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심신미약 판결이 쉽게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한국심리학회지 : 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심신미약을 주장했던 약 1,600건의 사례 중 심신미약으로 인정된 사례는 300건 정도다. 이 중 240건 정도가 조현병·조울증·지적장애·망상장애처럼 치료를 요하는 정신질환이다. 만취로 인해 심신미약이 인정된 경우는 약 20건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심신미약 판정은 어떤 기준으로 이뤄지는 것일까. 1차적으로 의사나 전문가가 피의자의 심신미약 상태에 대한 소견서를 판사에게 제출한다. 그러나 이마저도 명확한 진단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에 대해 오 교수는 "심신미약을 단정 짓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이를 법으로 규정하기 힘들다"며 "만취 상태로 인한 심신미약도 사람에 따라 판단 능력의 차이가 있어 반드시 심신미약으로 판단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따라서 판사는 소견서를 참고하되, 그 외 다른 종합적인 근거를 통해 피의자의 심신미약 상태를 판별한다. 결국 소견서에서 심신미약 판정을 받아도 판사가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별 효력이 없는 셈이다.

한편, 지난 25일 강효상(자유한국당) 의원이 심신미약 감형을 '꼭 해야 한다'가 아닌 '할 수도 있다'라고 규정하는 '김성수법'을 발의했다.

김종민 기자

whdals148@naver.com



자꾸 포기하지 말고 다꾸하자!

SNS 속 다꾸러리의 다이어리 영감

〈편집자주〉

2018년 막바지에 다다른 지금, 정 기자는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며 추억에 잠겼다. 때는 2018년 1월, 핑크빛 캠퍼스를 맞이할 설렘에 정 기자는 새해 계획을 세우기로 다짐했다. '올해는 꼭 다이어트에 성공할 거야', '올해는 자격증 공부도 열심히 해야지'... '뜻밖했던 신입생 시절을 추억하다 보니 어렵듯이 책장 속에 잠든 무언가가 떠오른다. 바로 '다이어리'다. 작년 이맘때쯤 굳게 마음먹고 산 다이어리였는데... 손때 묻은 첫 장을 제외하고는 새하얗게 텅 빈 속지를 보니 머쓱하기만 하다.

그러나 여기 1년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다이어리를 꾸미고 작성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스스로를 '다꾸러'라고 소개한다. '다꾸러'란 '다이어리 꾸미기'의 줄임말인 '다꾸'와 사람을 뜻하는 '러(-er)'의 합성어로 '다이어리를 꾸미는 사람'을 말한다. 다꾸러들은 다이어리를 단순히 메모하고 일기를 쓰는 물건에서 하나의 문화 영역으로 자리매김시켰다.

지금까지 '작심삼일' 정신으로 다이어리를 쓰다 중도 포기했거나, 다이어리를 쓰고는 싶은데 손재주가 없어 망설였다면 다음 기사에 주목하자.

#나, 같은 공손도 할 수 있다

SNS 속 화려하게 꾸며진 다이어리 사진들... 이는 정말 금손만 할 수 있는 일일까? '내가 세상에서 제일 가는 약필이'라고 생각하는 공손들도 얼마든지 훌륭한 다꾸러가 될 수 있다.

방법은 간단하다. 온·오프라인 문구매장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다양한 '다꾸

아이템'을 활용하는 것이다.

다꾸 아이템은 다꾸에 입문한 초보자라면 꼭 알아야 할 필수적인 준비물이다. 기존 문구사의 스티커보다 훨씬 저렴한 '인쇄소 스티커', 접착성이 없는 메모지인 '딱메모지', 디자이너의 그림이 패턴 형식으로 장식된 '랩핑지', 종이 재질의 테이프에 디자인이 프린트된 '마스킹 테이프' 등



▲온·오프라인 문구매장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다꾸 물품인 '마스킹 테이프'. 단색부터 화려한 패턴까지 형형색색인 것이 특징이다.

원하는 다꾸 아이템을 선택해 다이어리의 빈 공간을 채우기만 하면 된다.

염은애(26, 인스타그램 @eunyo) 다꾸러는 초보가 따라할 수 있는 손쉬운 다꾸 방법으로 '딱메모지'를 중심으로 스티커를 붙이는 방식을 소개했다.

그는 "원하는 다이어리의 디자인을 대략적으로 구상하고 딱메모지를 붙인 다음, 마스킹 테이프를 붙인다. 마스킹 테이프는 다시 떼었다 붙일 수 있어 제일 마지막에 붙이는 것이 편하다"고 팁을 전수했다.

#다꾸, 경력직의 이견 어때요?

기본적인 다꾸를 마스터했다면 이제 한 단계 앞선 색다른 다꾸를 시도해보자.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다꾸 아이템을 직접 만들어보는 것이다. 인쇄소 스티커는 기존 문구사에서 판매하는 스티커에 비해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제작이 가능해 많은 다꾸러에게 각광받고 있다. 실제로 SNS상에서는 자신이 디자인한 인쇄소 스티커로 다꾸를 하다, 판매까지 시작한 다꾸러를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이 같은 배경으로 문구업계에 뛰어들 김유정(유댕닷컴) 대표는 현재 인쇄소 스티커와 딱메모지를 자체 제작하거나 해외에서 수입해 되파는 방식으로 '유댕닷컴'을 운영하고 있다.

김 대표는 "최근 다꾸 문화가 성행하면서 다이어리 제품과 꾸미기 용품을 함께 구매하는 고객이 많아지고 있다. 그중 인쇄소 스티커는 조각 스티커, 젤리 스티커, 투명 스티커 등 다양한 종류로 제작돼 인기가 많다"고 설명했다.

꽃이나 잡지 등 아무도 시도해보지 않은 새로운 소재로도 나만의 특별한 다꾸를 경험할 수 있다. '이케이' 가구 잡지 속 사진에 오려 표지로 재구성한 황예진(21, 인스타그램 @lisaday) 다꾸러도 매일 새로운 재료를 활용하는 다꾸러로 유명하다. 그가 SNS에 공유하는 다꾸 영상은 약 9천 명 팔로워의 관심 대상이다.

#내 다꾸가 제일 잘나가

수십 번의 실패와 성공을 거쳐 탄생한 내 다이어리! 귀엽뽀뽀한 인쇄소 스티커와 마스킹 테이프로 꾸며진 다이어리를 보니 이제는 동네방네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솟구친다. 그래서인지 SNS 속 다꾸 문화는 점점 더 활기를 띠고 있다.

강희원(24, 인스타그램 @ella_diary) 다꾸러는 약 3천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유명 다꾸러다. 친구의 추천으로 알게 된 인쇄소 스티커로 다꾸에 눈을 뗀다는 그는, 다꾸를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알아두면 좋은 팁이나 추천 제품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계정을 운영 중이다.

SNS에서 활동하는 다꾸러들은 자신만의 다꾸 콘셉트를 찾아 트레이드 마크처럼 꼭 넣고 나가기도 한다. 다이어리의 대부분을 일기글로 채우는 신재은(25, 인스타그램 @25_diary) 다꾸러는 약 1천 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다. 그는 꽃 모양 숫자 스티커로 날짜를 표시하고, 일기 내용과 어울리는 스티커를 하나씩 붙이는 방법을 애용한다. 그의 다꾸 방법은 자칫 다른 다꾸에 비해 화려함이 덜하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그는 하루를 기록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다.

글보다 그림을 활용해 다이어리를 꾸미는 다꾸러도 있다. 약 6천 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는 안봄(26, 인스타그램 @palbegae) 다꾸러다. 그는 하루 일상을 짤막한 문장 및 줄과 함께 그림으로 표현한다. 그림일기야말로 그의 개성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은 마치 빈 종이와 같다. 빈 종이를 조금 더 다채롭게 만들어주는 다꾸는 평범했던 하루를 평범하지 않게 꾸며내는 과정이다. 하루가 저물 무렵, 숨겨둔 다이어리를 펼쳐 때로는 단순하게, 때로는 화려하게 나만의 다이어리를 꾸며보자. 기분이 좋지 않았던 날에는 마음을 다스리고, 행복한 하루를 보낸 날에는 그 날의 기억들을 되새겨 더욱 기분 좋은 밤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정수민 기자
sff1228@naver.com



▲염은애 다꾸러는 밤, 은행잎, 단풍잎 스티커와 자줏빛 색종이를 오려 붙여 가을 감성을 연출했다.



▲안봄 다꾸러는 열매걸레에 시리얼 한 통을 다 비워버린 에피소드를 아기자기한 그림으로 남겼다.



▲권아름 다꾸러는 '집순이의 하루♥'라는 제목으로 딱메모지, 마스킹 테이프, 인쇄소 스티커를 붙여 소소한 일상을 화려하게 장식했다. 특히, 동글동글한 손글씨가 돋보인다.



사군자를 넘어 민초까지... 세종 시대의 문화

사람들은 '전시'하면 가장 먼저 무엇을 떠올릴까. 아마 국내·외 작가들의 휘황찬란한 작품을 감상하며 단순한 시각 정보로 즐기는 전시를 떠올릴 것이다. 이러한 전시는 짧은 감탄사와 함께 금방 머릿속에서 사라지기 마련이다. 그러나 기존의 틀에 박힌 전시에 배움을 더하는 전시가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오는 12월 20일까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리는 '세종 즉위 600주년 기념 특별 전시 회가 바로 그것이다.



▲훈민정음 초기 모습을 보여주는 '월인석보 권20'. 사진 제공: 국립중앙박물관

훈민정음을 창제하고 조선의 과학 발전을 이끌었다고 알려진 세종이지만, 그는 문화 부흥에도 일가견이 있는 군주였다. 이번 전시는 조선 초기 문화 융성에 앞장섰던 시집 『봉사조선창화시권』 등 개별적으로 산재하던 국가지정문화재 4건을 상설전시실 1층의 중·근세관 조선 II실에 한데 모아 무료로 특별 공개한다.

처음 전시실에 들어서면 이름 모를 시집이 길게 놓여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한눈에 봐도 고풍스러운 느낌을 물씬 뽐내는데 이 시집의 제목은 『봉사조선창화시권』이다. 제목부터 생소한 이 책은 이번 전시회의 백미라고 칭할 정도로 세종 시대 문화를 상징하는 시집이다. 시집에 수록된 시들은 15세기 무렵 사대부 문화로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시를 음미하고 있다보면 마치 자신이 당대 사대부가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전시에는 관람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해설본이 비치돼 있어 한자를 읽을 줄 몰라도

부담 없이 시집을 읽을 수 있다. 시집을 쪽 읽다보면 명나라 사신 예겸이 남긴 "그대와 하룻밤을 이야기하는 것이 10년 동안 글을 읽는 것보다 낫다"는 말이 나온다. 당시 문화 수준이 그만큼 높았다는 점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친필이 거의 전해지지 않는 집현전 학사들의 필체와 인장을 구경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더욱 특별하다.

맞은편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언어로 쓰인 책이 있다. 이 책은 『월인석보 권20』으로, 한자로 기록된 내용을 한글로 번역한 최초의 책이다. 이는 당대 한글이 갖고 있던 사회적 입지를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다. 특히, 『월인석보 권20』은 '나랏말싸미 등귀에달아...'로 널리 알려진 '세종어제 훈민정음'보다 실용적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기현(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는 "문자는 그것이 사용돼야 문자로서 의미가 있다. 이 책은 당시 민중들이 사용하던 언어를 그대로 반영해 쓰여졌다. 더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을 수 있었던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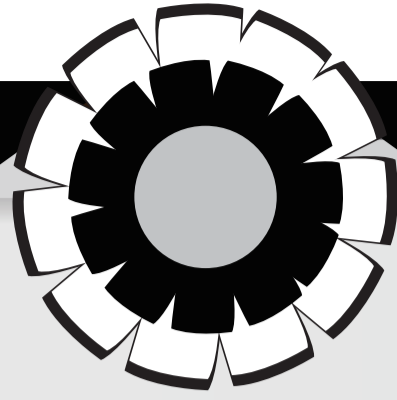
▲지난 8월, 국보로 승격된 『봉사조선창화시권』, 세종 시대의 문화 부흥을 이끌었던 정인지, 신숙주 등의 친필을 볼 수 있다.

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여러 차례 전정을 겪은 결과, 조선 초기 문화재는 현대까지 전해지는 것이 많지 않다"며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조는 『조선왕조실록』에서 "우리나라에 인재가 많이 나오기로는 세종 때보다 성대한

적이었다"고 언급했는데, 이 전시회를 다녀오면 정조가 왜 그런 발언을 했는지 당신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심상우 기자
sangwoo6531@naver.com



청년 영정사진 작가 홍산

파랗게 명드려 정준, 삶의 끝에서 봄을 맞는다

인생의 끝은 언제일까? 100세 시대라고는 하지만, '오는 데는 순서 있어도 가는 데는 순서 없다'는 말처럼 우리가 언제 죽을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사람은 누구나 죽고, 그래서 죽음으로부터 멀어질 수 없는데도 죽음을 받아들이는 일은 누구에게나 늘 어렵다. 두렵고, 슬프고, 우울하고... 언젠가 다칠 죽음의 순간을 막연히 떠올려보면 '어차피 죽을 거 왜 사나 싶은 생각에 무기력해지기도 한다. 그래서인지 죽음은 활기와 진취의 상징인 청춘과는 동떨어진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요즘, 죽음에 대해 관심을 갖는 청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그것을 보여주는 현상 중 하나가 바로 영정사진을 촬영하는 청년들의 모습이다. 활기찬 미래를 만들어가야 할 청년들이 영정사진이라... 혹시 불치병에 걸리거나 한 것은 아닌지 안타까운 생각이 먼저 떠오를 테지만, 선분부 걱정은 금물이다. 이들은 영정사진을 찍으며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말이다.



▲홍 씨가 촬영한 작품. 그녀는 일반적인 영정사진처럼 정면을 응시하고 무표정한 것 대신, 개개인의 생애와 개성이 스며든 영정사진을 찍고자 했다.

치열한 현실에 지친 마음을 가상의 죽음을 마주하며 정리하고, 삶의 소중함을 되새긴다는 것이다.

이 '죽음 마주하기' 열풍은 한 대학생 사진작가의 '영정사진 프로젝트'로부터 시작했다. 사진작가 홍산(24) 씨는 올해 4월부터 '생의 끝을 내던져 자신을 마주하는 영정사진을 찍습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그녀 역시 20대 청년이라는 것이다. 젊음의 상징인 대학생이 어떤 연유로 영정사진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 것일까? 궁금한 마음에 그녀를 찾았다.

성수동의 한 카페에서 만난 홍 씨는 "죽음은 우리의 삶과 멀리 있지 않다"고 말했다.

"숨통이 끊어지는 물리적 죽음도 있지만, 자신의 의지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도 은유적으로는 죽음과 같다고 생각해요. 사회가 정해놓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때 느끼는 무기력증과 우울증도 또 다른 죽음의 형태가 아닐까요?"

그녀는 주변에서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고 했다. 노력과 열정,

그리고 세상을 바꿀 용기까지... 홍 씨는 청년에게 만능을 기대하는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할 때 무기력증이 찾아온다고 했다. 그녀 역시 그런 시간을 겪었다. 당시 그녀는 우울한 마음에 같은 처지인 친구들과 대화를 하면서 '아, 이럴 바엔 차라리 죽는 게 낫지'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 '나는 왜 이렇게 도태되는 걸까' 하는 자괴감에 빠져있던 그녀는 이런 감정을 표출하지 않으면 자신의 마음이 썩어 들어갈 것만 같았다고 그때를 회상했다. 그런 그녀에게 숨구멍이 되어 준 것이 바로 사진이었다.

대학 입학 선물로 받은 DSLR을 가지고 사진을 독학한 홍 씨는 문득 카메라를 통해 자신의 답답한 마음을 표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침대에 무기력하게 누워만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생산적인 활동을 하는 편이 좋겠다고 생각한 그녀는 영정사진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그렇다면 왜 굳이 영정사진일까? 세상에는 인간 외에도 다양한 생물이 존재하고, 모두가 죽음을 맞는데 말이다.

"다양한 오브제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저는 '사람'이야말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가장 쉽게 전달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해요. 스튜디오 촬영 특성상 공간의 제약이 있어 얼굴밖에 찍지 못하지만, 표정 하나로도 충분히 각자의 개성에 맞는 죽음을 표현할 수 있다고 봐요."

그녀는 스튜디오를 찾아오는 손님들이 정말 다양한 모습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똑같이 죽음을 마주한 사람들이지만 어떤 이는 우울함이 가득한 모습으로, 또 어떤 이는 행복이 가득한 모습으로 카메라 앞에 선다는 것이다.

홍 씨는 손님들이 어떤 모습으로 그녀를 찾아오든, 영정사진을 촬영한 모두가 이 활동을 통해 색다른 경험을 얻어가길 바란다. 다소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 공간에서 무겁게 여겨지는 주제를 다루지만, 그녀는 카메라 앞에 선



▲청년 영정사진 작가 홍산의 영정사진

손님들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솔직한 모습을 드러내길 원한다.

"세상에 남기는 마지막 모습이라 생각하고, 손님이 원하는 모습 그대로 사진에 담아드리는 것이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근엄한 죽음이 아니라 개개인이 자신만의 색을 지니고 죽음과 마주하기를, 그로 인해 내일을 살아갈 활력을 얻어가기기를 바라요."

그녀는 현재 직장에 다니며 사진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 SNS에서 입소문을 타고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면서도 스튜디오 운영을 본업으로 삼지 않고 직장생활과 병행하는 이유에 대해 묻자 그녀는 웃으면서 답했다.

"사진을 '일'로 하니까 하기 싫어지더라고요.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사진을 제 인생의 유일한 '즐거움'으로 남겨두고 싶어요. 제가 사진을 통해 힘든 시기를 이겨냈듯이, 제 작업을 통해 많은 분들께 힘을 드리려고요."

정명아 기자

mhbtd0330@naver.com

2019학년도 전기
한성대학교 대학원
신입생·편입생 모집

깊고 큰.

인생의 전체를 바꿀 한 순간!

선택을 옳게 만드는 힘은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한 분야에서 진정한 전문가로 거듭날 당신을 위해 한성대학교 대학원이 깊고 큰 지성을 전합니다



| 일반대학원(주간) |

대학원	학위	계열	학과
일반대학원	박사	인문계	한국어문학과 영어영문학과 사회학과 문화정보학과
		사회계	경영학과 행정학과 무역학과 경제·부동산학과
		공학계	산업경영공학과 정보컴퓨터공학과 기계시스템공학과
		예·체능계	미디어디자인학과 지식서비스 & 컨설팅학과
		인문계	한국어문학과 사회학과 영미문화학과 문화정보학과
석사	석사	사회계	무역학과 경영학과 행정·도시정책학과 경제학과 국제무역경제학과
		공학계	산업경영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전자정보공학과 IT융합공학과 기계시스템공학과
		예·체능계	회계학과 의류패션산업학과 무용학과 미디어디자인학과
		학과간협동과정	뉴미디어광고정보통신학과

| 특수대학원(야간) |

대학원	학위	계열	학과
경영대학원	석사	사회계	경영학과 호텔관광외식경영학과 글로벌경영학과
행정대학원	석사	사회계	행정학과 사회복지학과 경찰행정학과 마약알콜학과 민원행정컨설팅학과
예술대학원	석사	예·체능계	뷰티예술학과
국방과학대학원	석사	사회계	안보전략학과 국방관리학과 국방시스템학과
지식서비스 & 컨설팅대학원	석사	사회계	지식서비스 & 컨설팅학과 미래융합컨설팅학과
부동산대학원	석사	사회계	부동산투자금융전공 부동산평가전공 부동산개발 및 관리전공 지적 및 토지관리전공 한중부동산컨설팅전공
교육대학원	석사	인문계	교육행정 & 리더십전공 상담심리전공 유아교육전공

| 원서접수 및 발표 |

- 원서접수기간 2018. 11. 19(월) 10:00 ~ 11. 30(금) 22:00
- 접수방법 대학원 홈페이지 (http://gs.hansung.ac.kr) 모집요강 확인후, 유웨이(유웨이) (http://www.uwayapply.com) 인터넷접수
- 면접전형일 2018. 12. 8(토) 10:00 ~ (학과별 변동 가능)
- 합격자발표 2018. 12. 20(목) 오후 예정(대학원홈페이지 참조)
- 전화문의 (02)760-4271 (일반대학원 교학팀)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대학원 홈페이지 또는 전화문의 바랍니다.

한성대학교 대학원

(02876) 서울특별시 성북구 상선로 16길 116



‘조각조각’ 한글을 내 맘대로 잇다

한글 해체 현상, 15·20세기에도 나타나

“동의? 어 보감”, “오지고지리고랫잇고 아미고”. ‘괴연 한글이 맞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이러한 말투는 청소년을 중심으로 유행하는 ‘급식체’다. 급식을 먹는 세대 즉, 10대들이 자주 사용하는 문체라는 뜻인데, 최근에는 20대 사이에서도 자주 쓰이고 있다. 이외에도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야민정음’ 등 기존 문법을 파괴하는 ‘한글 해체 현상’이 1020세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현 상황을 보면 “세종대왕님이 무덤에서 통곡하신다”와 같은 우리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그렇다면 정말로 한글 해체는 1020세대가 자아낸 ‘한글 파괴’의 현상인 것일까? 취재에 따르면, 아마도 세종대왕이 무덤에서 통곡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활자에서 한글 해체에 이르기까지

한글이 창제된 직후인 15세기 서적에서도 한글 해체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석보상절』, 『월인천강지곡』 등이 한글 해체 현상을 찾아볼 수 있는 대표적인 서적이다.

세종은 한글 창제 직후 한글로 책을 써내기 위해 한글 활자를 주조했다. 활자로 인쇄하면 자유롭게 활판을 해체하고 재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글 활자가 처음 만들어지던 시기에는 사용 빈도가 높은 활자는 충분히 많이, 거의 쓰이지 않는 활자는 상대적으로 적게 제작했다. 이 때문에 서적 제작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많이 쓰이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던 활자가 예상과 다르게 자주 쓰여 곤란해진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문제는 활자 제작자의 센스로 해결됐다. 예를 들어, ‘꿈’을 ‘문’으로 180도 회전시켜 사용한 것이다. 활자를 새로 주조하는

1

燈-電-燈-電

燈-電-燈-電

머·니 海岸 쪽
포폴아! 늘어는 큰기리로

3

線에關한覺書 6

이상

數字의方位學

4 4 4 4

數字의力學

時間性(通谷思考에依한歷史性)

速度와座表와速度

4 + 4

슬픈 印象 畫

수박 내 口새 품어오는
호주군 한 첫 너름의 저녁 때

2

죽었소이다

당신의 목선 소리는
X X ! X X ! 에
지질려 놀려

音響! 音響!
여보! 工場監督!
당신의 목선 소리는

符號를 보렴으나
한時間에 十萬장式 박어라!

A 輪轉機와 四層 집

輪轉機가 소리를 지른다
X X ! X X ! X X ! X X !

▲1 정지용의 《슬픈 印象畫(인상화)》 2 《輪轉機(운전기)와 四層(사층)집》 3 이상의 《線(선)에 關(관)한 覺書(각서)6》. 한글 해체 현상은 20세기 초반 시단에서 끊임없이 시도됐다.

것보다 훨씬 효율적인 해결 방안이었다. 실제로 『석보상절』을 살펴보면 문헌에 ‘ㄱ·ㄷ’이 반복해서 나온다. 이는 지금의 한글과 형태가 다르고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워 학자들의 주목을 끌었다. 그런데 ‘ㄱ·ㄷ’을 ‘곤’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등장해 학계에 파장을 일으켰다. 당시 활자 주조 기술이 세밀하지 않아 이미

만든 활자를 재사용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는 주장이다.

근대 시에 녹아 있는 한글 해체

이러한 한글 해체 현상은 20세기 초반 문단에서도 끊임없이 시도됐다. 1920년대, 시인 정지용이 쓴 《슬픈 印象畫(인상화)》에서는 ‘내 口새’, ‘머·니’, ‘큰기리’ 등

중성과 중성이 서로 분리된 것을 관찰할 수 있다. 동시대 시인 김나폴라이의 《輪轉機(운전기)와 四層(사층)집》에서는 더욱 다양한 시도가 이뤄졌는데 시인은 ‘音響(음향)’의 활자 크기와 굵기를 다양하게 표기했다. ‘音響’을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점점 커지게 만들었고 글자가 굵어지면서 자연스럽게 글자가 집중할 수 있게

만들었다. 더불어 기호 X·!·!! 등을 반복적으로 사용해 다른 시와 확연한 차이를 두었다.

이러한 시도는 더욱 심화돼 1930년대를 대표하는 시인 ‘이상’, ‘김기림’ 등의 시에서 더욱 도드라졌다. 시인 이상은 《線(선)에 關(관)한 覺書(각서)6》에서 색다른 한글 해체를 시도하기에 이른다. 활자 ‘4’를 상하·좌우 반전을 시도해 배치한 것이다. 이 때문에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시를 읽을 수가 없는데, 이에 대해 이어령 문화평론가는 일전에 “숫자 4의 개념을 버리고, 지도에서 북쪽 방향을 나타내는 화살표 4와 숫자 4의 모양이 같다고 보아, 4의 방향을 바꿔놨다”고 언급했다.

이로부터 반세기가 지난 1980년대에도 한글 해체 현상은 시인들에게 사랑받으며 종종 모습을 드러냈다.

시각 유희만이 살아남는다

종이 위에 적어내던 활자부터 인터넷 공간에서 쓰이는 디지털 문자에 이르기까지 한글은 매체의 특성에 따라 자연스럽게 변화해왔다.

이에 대해 강욱미(조선대학교 국어국문학) 교수는 “디지털 공간에서 일어난 한글 해체는 글자에 감정을 담아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문자 유희의 일환이자 시각 유희의 도구나 다름없다. 그중 시각 유희는 문자가 넘쳐나는 현대 사회에서 가뭇의 단비 같은 존재”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급식체로 일컬어지는 모든 표현을 권장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언어의 역사를 살펴보면 시각 유희에 적응한 문자만이 살아남았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볼 때 급식체는 이 같은 변화에 적응한 언어”라고 설명했다.

심상우 기자
sangwoo6513@naver.com

‘북원의 마술사’ 한지, 유럽을 사로잡는다

‘지천년견오백(紙千年緝五百)’. 한지는 천년을 가고, 비단은 오백 년을 간다는 말이다. 예로부터 한지는 오랜 시간이 지나도 성질이 변치 않는 우리의 고유한 지류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 전통 한지가 유럽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2016년 말, ‘신현세 전통한지 공방’에서 제작된 한지가 이탈리아의 ‘국립기독교산보존복원중앙연구소(ICPAL)’로부터 문화재 복원 재료로 적합성 인증을 받은 이후, 이탈리아 문화재 7점이 한지를 이용해 복원된

것이다. 또, 교황청 산하 바티칸 박물관에 소장된 6점의 문화재 복원에도 한지가 사용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지 세계화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와 같이 한지가 해외에서 우수성을 입증받은 비결은 무엇일까?

먼저, 한지의 주재료인 다펀에 그 비결이 있다. 다펀에는 ‘리그닌(Lignin)’이라는 성분이 함유돼 있는데, 이 성분은 섬유를 수분과 자외선으로부터 취약하게 만든다. 그런데 한지는 리그닌이 10% 미만으로

함유된 1년생 다펀으로만 만들어지기 때문에 종이의 질과 보존성이 우수하다.

다음으로, 한지는 ‘천연 표백법’을 활용해 만들어진다.

이에 대해 전진숙 한지공예가는 “이 과정에서 순백색의 우량 종이를 제조하기 위해 잡색을 띤 비섬유질을 완전히 제거하는 천연 표백법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천연 표백법 중 ‘햇물 표백법’은 천연 표백법의 대표적인 방법으로, 흐르는 물에 다펀의 잿물기를 씻고 2~3일 정도 햇빛에 말리는 방식이다. 여기서 과산화수소(H₂O₂)와 오존(O₃)이 발생돼 산화·표백이 일어나고, 이는 섬유가 손상되지 않고 특유의 광택을 유지하도록 돕는다.

마지막 비결은 ‘한지 뜨기’ 과정과 마무리 공정 ‘도침’에 있다. 우리나라 한지 뜨기 기법 중 전통 기법인 ‘외발뜨기’는 섬유를 좌·우 일정한 비율로 배열하는 것이다. 한지는 이 기법으로 인해 섬유 조직의 좌·우 방향이 서로 90도로 교차하게 되며 매우 질긴 성질을 갖게 된다.

또한 제조의 마무리 공정인 도침은 한지의 질을 더욱 높여준다. 이는 종이 표면을 더욱 치밀하게 합과 동시에 평활도(종이 표면의 매끄러움 정도)를 향상시키고 광택을 내는 과정이다. 이때 풀칠한 종이를 여러 장씩



▲최근 유럽에서 문화재 복원 용도로 쓰이고 있는 한지는 국내 문화재 복원에도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 사진은 한지로 복원된 우리 문화재 『능엄경언해(楞嚴經諺解)』. 사진제공: 국립중앙박물관

겹쳐 놓고 디딜방아 모양의 도침기로 골고루 내리치게 되는데, 이는 우리 조상들이 세계 최초로 고안한 종이 표면 가공 기술이다.

이 같은 비결로 한지는 수준 높은 보존성·보존성·통풍성을 갖게 된다. 특히, 한지는 제조과정에서 원재료, 두께, 색도 등의 특성을 달리할 수 있어, 복원 작업 시 문화재에 따라 적합한 한지를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한지가 기존 문화재 복원 작업에 사용되던 일본 종이 ‘화지’보다 내구성이 우수한 것도 세계적으로 각광받게 된 데 한몫했다.

한편, 윤승락(경남과학기술대학교 인테리어

재료공학과) 교수는 “현재 한지 제지술에 대한 공식적인 기록이 없는 데다가, 한지 제조 종사자들의 연령까지 높아 이 기술이 소멸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기술 계승이 시급하다”고 경고했다.

우리 조상의 정취와 생활의 맛이 듬뿍 담겨있는 한국 고유의 전통 ‘한지’. 조상으로부터 대대로 이어받은 문화유산 한지에 자긍심을 가지고 맥을 이어나가는 것은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다.

장선아 기자
suna0913@hansung.ac.kr

① 다펀의 비밀

② 천연 표백법

③ 외발뜨기 및 도침

▲한지의 우수성 비결 사진제공: 원주한지테마파크

· 삼 학 송 ·

투표하지 않겠다는 당신에게

11월 말에 치러질 총선을 앞두고 학내 는 벌써부터 시끌벅적하다. 교내 곳곳에 서 펼쳐지는 선거 유세도 유세지만, 대 나무숲과 같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펼쳐지는 학우들 간 논쟁도 만만치 않다. 그중 가장 갑론을박이 팽팽한 쟁점은 바로 '유권자에게 투표하지 않을 권리가 있느냐'다. 투표 여부는 선택이 아닌 '의 무리는 입장과, 투표는 의무가 아닌 권 리'이므로 그 여부 또한 '선택'이라는 입 장이 서로 대립하고 있는 것이다.

투표권 논쟁이 불붙은 것은 바로 지 난 11월 6일 대나무숲에서부터였다. 이 날 대나무숲에는 "저는 내년 총학생회 선거 투표 안 할랍니다 (중략) 투표율만 넘으면 당선되는 투표에선 미투표도 권 리 행사니까요" 등 투표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익명 제보가 게재됐다. 이들 이 투표를 거부하는 데는 각자 사정이 있겠지만, 공통적으로 언급한 이유는 '투표를 통해 선출된 학생회에 대한 불 만족'이었다. 시간을 내어 투표해도 그 령게 선출된 학생회가 잘 기능하지 못 해 애써 표를 던진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대나무숲에 투표 거부 의사가 게재된 지 하루 만에 반박글이 다수 게재됐다. "미투표는 권리 행사가 아닌 권리 포기 입니다. 무효표를 해서라도 자신의 의 사를 표출해주세요"라며 무효표라도 행 사할 것을 권하는가 하면, "여러분들 선 거율이 50%가 안 된다면 학생대표는 뽑히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반 대표가 엄청 많아서 안 뽑히는 게 그 사 람들한테 더 의견을 표출하는 방식이지 않을까요? 투표 꼭 해주시고 차라리 반 대표를 뽑으세요"라며 무효표가 아닌

반대표를 던져 의사를 표시할 것을 권 하기도 했다.

사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대학사회에 서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 안고 있 는 고민거리다. 선거철만 되면 SNS 및 커뮤니티 등지에서는 '투표하지 않을 권리'가 중요한 논제로 오르내리곤 한 다. 특히 일부 네티즌들은 '투표권에는 투표를 포기할 권리도 포함되는 것'이 라며 뽑고 싶은 후보가 없다면 투표를 포기하는 것도 목소리를 내는 방식 중 하나라고 말한다.

그러나 나는 조금 다르게 생각한다. 우선 '투표권을 포기한다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행정법상 투표권 즉, 참정권은 개인적 공권에 해당한다. 여 기서 공권은 공공의 이익 실현을 목표 로 하기 때문에 양도·포기가 인정되지 않는다. 물론, 가장 이상적인 투표는 당 연히 최선의 후보에게 표를 던지는 것 이다. 하지만 그것이 어렵다면 차선에, 그것마저 어렵다면 차악에게라도 표를 던져 최소한 '최악'만은 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내가 던지는 한 표가 가진 힘은 선거 의 당락을 결정하기에 충분하다. 실제 로 지난 2008년 강원도 고성군수 보궐 선거에서 황중국 당시 후보(4,697표)가 윤승근 후보(4,696표)를 단 한 표 차이로 이기며 화제가 됐다. 다가오는 총선에는 꼭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자신의 권 리를 찾으려 하자.

끝으로 미국의 제14대 대통령 프랭클 린 피어스는 이렇게 말했다. "선거란 누 군가를 뽑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뽑지 않기 위해서 투표하는 것이다."

강예림 편집국장



우촌관 앞에 위치한 주택가 인근 보도. 이곳은 지난 9월, 우촌관 외벽 보수공사 시 잠시 개방됐다가 공사가 끝나자 다시 폐쇄됐다. 이에 대 해 시설지원팀은 "사생활 침해나 소음 같은 거주민의 생활불편 민원 때문에 보행을 통제"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일부 학생들이 그 맞은편에 마련된 보도 대신 차도로 통행하고 있어 종종 위험한 상황이 연출된다는 점이다. 앞으로 이곳을 지날 땐 안전을 위해 맞은편 보도 를 이용하는 것이 어떨지. 정수민 기자

의화정

최근, 우연한 기회에 눈에 띄는 광고를 보았다. 썩(SSG) 광고이다. 광고에서 나오 는 말이 마치 외계어로 들렸기 때문에 두 연기자가 전달하려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 서 전편 광고부터 찾아봐야 했다. 여러분에 게 코딩 언어가 혹시 이와 같은 외계어로 들리고 있지는 않는가?

4차 산업 대비의 일환으로 현 초·중고 교 학생들은 올해부터 코딩 교육을 일정 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학생들이 인공 지능 언어에 대한 지식을 기반으로, 자신 이 원하는 소프트웨어를 직접 제작하고 활 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나아가 코 디ング 하면 학생들은 기계와 소통할 수 있 고, 이를 통해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과

코딩 언어, 외계어인가?

소통할 수 있는 능력도 길러질 것으로 보 인다.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갈 차세대인 전 세계 학생들이 코딩을 배우는 데는 문제해 결 능력과 논리적 사고 증진을 위한 취지에 기반을 뒀다.

하지만 코딩 교육의 발전은 서로 상이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아시아 권 역 즉 우리나라, 중국, 인도가 주도하는 코딩 교육은 암기를 강조하는 데 반해 미국은 놀 이를 통해 학생들이 원리를 깨우치도록 하 고 있다.

특히, 국내 코딩 교육은 사교육 시장으로 내몰려 또 다른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초래 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여지고

있다. 더 나아가 취업 준비생에게도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 대학들이 코딩을 교양교육으로 가 르치는 데는 학생들의 창의적인 문제해결 력 향상이라는 본질적인 교육학적 함의가 있다. 마찬가지로 국·내의 많은 비영리 단 체 및 주요 회사들이 나서서 전 국민이 코 디ング를 접하고 익힐 수 있도록 계몽하고 있 으며, IT 기업들은 일반인들도 코딩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기초교육 서비스를 앞다투 어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누가 무엇을 정 규 교과에 추가하지 않아도 스스로 미래 사회를 준비해 나아가야 한다는 취지에서 코딩을 배워야 할 것이다.

현일선(교양영어교육과정) 교수

#낙산세컷_시작은_실문조사_끝은_사이비_포교

심상우 기자



기자수첩

대학에 입학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일이다. 당시 나는 동아리 활동 중 부원들과 함께 행사를 진행할 일이 있었다. 부원 중 한 명이었던 A는 평소 눈치가 없고 고집이 센 성격이었지만, 본성이 악한 편은 아니라 다른 부원들과 원만히 잘 지냈다. 그런데 또 다른 부원인 B는 A를 무척 싫어했다. 그 이유 는 그저 'A를 이해할 수 없어서'였다.

B는 단순히 A를 싫어하기만 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다. A를 '행사 준비에 방해가 되는 사람'으로 몰아가 갈등을 조장한 것이다. 나는 "A를 이해할 수 없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던 B를 보며 생각했다. 'B 자신도 타인 에게 이해받기 어려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까?'

세상을 담기에 아직 우물은 작다

단지 이해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A를 배척한 B의 행위는 물론 지탄받아 마땅하 다. 그렇다면 우리는 단 한 번도 타인을 '이 해할 수 없어서' 배척한 적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 매년 귀어축제에 대한 인터넷 기사에는 '성소수자니 뭐니 하면서 관심 끌 러고 하지 말고 너희끼리 조용히 놀아라'와 같은 댓글이 달리곤 한다.

실제로 지난 9월 8일, 고려대학교 보건 과학대학 교수 연구팀이 제1회 인천귀어문 화축제에 참여한 동성애자를 대상으로 설 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98%(298명)가 '부모는 너희를 낳은 걸 후회할 거다'와 같 은 폭언을 들었다고 답했다.

동성애 혐오뿐만이 아니다. 청소년 혐오,

노인 혐오, 이성 혐오 등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나와 다른 이들을 배척해왔 다. 실상 사회 구성원의 대다수는 B와 같은 우물 범한 적이 없다고 자신할 수 없는 것 이다.

우리는 보통 '이해'를 미덕이라고 생각한 다. 하지만 자신이 겪어보지 못한 일을 이해 하기란 쉽지 않다. 결국 그것을 '이해'하려 하는 것은 내 작은 우물에 세상을 끼워 맞 추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대한민국이 '혐오 공화국'이 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작 은 우물에 큰 세상을 옥여넣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크기에 맞춰 우물을 넓히려는 노력, 즉 '존중'하려는 자세가 아닐까.

정명아 기자

낙산에 올라

최근 강서구의 PC방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으로 인해 대다수의 국민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다. 많은 죽음을 접하는 법의학 자 역시 이해하기 힘든 참혹한 상흔이라며 고개를 저었다. 이 사건은 PC방에서의 작 은 말다툼이 원인이 되었다고 한다. 그 작 은 말다툼이 믿기지 않을 만큼 잔인한 결 과를 불러일으켰다. 아무리 살아온 환경이 다를지라도 피의자는 결국 우리와 같은 사 람일텐데 어떻게 저런 참혹한 행동을 떠올 릴 수가 있으며, 또 어떻게 그것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 다. 내가 생각하던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잔 혹함의 범위에 의문이 들 정도였다.

도대체 무엇이 그의 마음속에 있기에

恨(한)

잔인함이라는 모습으로 세상에 드러났을 까? 아마 그의 속엔 단단한 한이 있었던 것 같다. 물론 억울하게 죽은 피해자를 놓 고 피의자의 한에 대해 운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원치 않 는 결과를 막기 위해서는 원인을 제거해 야 하기에, 또 다른 피해자가 생겨나는 일 을 막기 위해선 피의자를 들여다볼 필요 가 있다.

'한국사람 99%가 후회하는 순간'이라는 설문 중 '참지 말아야 할 때 참는 것이 높 은 순위에 올랐다. 피의자를 비롯한 우리들 대다수는 참지 말아야 할 때 참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것이다. 그런 순간들이 하나 둘씩 모여 응고되고 결국 마음 속 단단한

한이 되는 것이다. 물론 이에 대한 간단한 해결책이 있다. 꼭꼭 누르지만 말고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표현하면 된다. 하지만 이를 위해선 한 가 지 필요한 것이 있다. 누군가 표현하면 누 군가는 그 표현을 받아주어야 한다. 즉 표 현을 위한 이해가 필요하다.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고 이해하는 것 이 의사소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또 그만큼 어려운 것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우 리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경청하고 이해 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한(恨)이 쌓여 가는 그들을 위해서, 한(恨)이 쌓일 수 있는 우리를 위해서.

이정호(인문1)



총학생회, 지나온 길과 가야할 길

〈편집자주〉

28, 29일 치러질 총선을 앞두고, 각 후보들이 표심 얻기에 나서 학내 분위기가 뜨겁다. 학생들의 관심이 공개기구 선거에 집중되는 이 시기에 〈한성대신문〉은 제34대 총학생회 '참'의 활동을 점검하고, 학생들이 차기 총학생회에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 들여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기연 기자 shell990824@naver.com

학생들이 총학생회에게 진정 원하는 것은?

〈한성대신문〉은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지난 11월 6일부터 9일까지 나흘간 총학생회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총 108명의 학생이 설문조사에 참여했다. 먼저, '총학생회 활동에 만족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66.7%가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는 '만족한다'고 답한 33.3%보다 두 배 가까이 높은 수치다.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학생들은 '학교 내 이슈에 대한 입장 표명이 없었다(36.1%)', '학생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지 않았다(30.6%)'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응답자들은 그밖에도 ▲진행한 행사들이 유익하지 않았다(6.9%) ▲활동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다(4.2%) ▲기타(22.2%) 등을 불만족 이유로 꼽았다.

기타 의견으로는 '무슨 활동을 했는지 모르겠다', '학생들을 위한 활동보다 학생회 구성원들의 친목을 도모하는 활동이 많은 것 같다'고 서술한 학생들이 많았다.

'학생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조남호(사회과학 2) 학생은 "학생회가 간담회를 진행하며 학생들과 소통을 시도했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학생들이 근로 혹은 학교생활 중 불편사항을 겪었을 때 총학생회가 학교 측에 즉각적으로

피드백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서 적극적으로 소통하지 않는다고 느꼈다"고 전했다.

한편, '총학생회 활동에 만족한다'고 답한 학생 중 69.5%가 '학생들을 위한 여러 행사를 진행했다'는 점을 근거로 꼽아 눈길을 끌었다. ▲행사 일정을 공개했다(13.9%)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8.3%) ▲수강신청 안내책자 업데이트를 수강신청 전에 완료되게끔 했다(8.3%)는 의견도 있었다.

'총학생회 활동에 만족한다'고 답한 우아라(인문 1) 학생은 "1학기 때 축제를 했는데, 2학기 때도 축제와 비슷한 행사를 한 번 더 개최해 줘서 즐겁게 학교를 다닐 수 있었다. 특히 자족파티에서 맥주나 음료수를 무료로 준 점, 이벤트를 많이 했다는 점이 좋았다"고 언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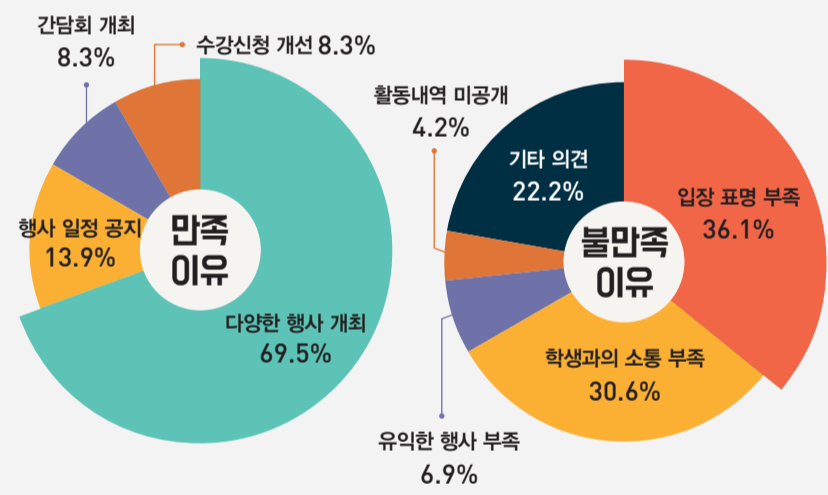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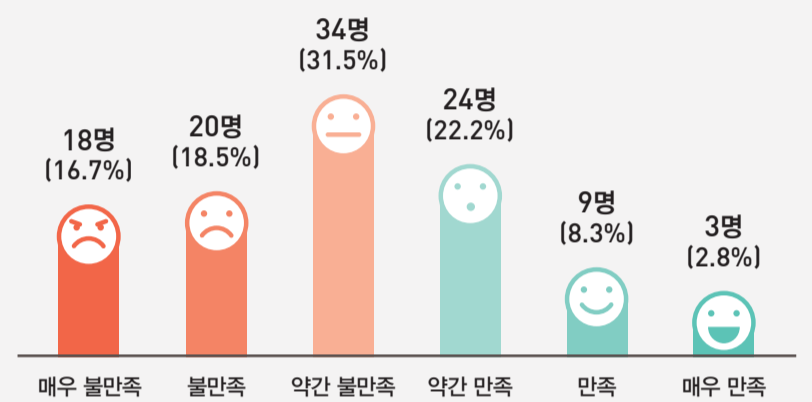
차기 총학생회에게 바라는 점을 묻는 문항에는 '더 적극적으로 학생들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했으면 좋겠다(34.3%)'고 답한 학생들이 가장 많았다. 또한 ▲학교와 학생 간의 갈등이 발생했을 때 적극적인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25.0%) ▲학생들에게 활동 내역을 공개했으면 좋겠다(22.2%) ▲학생들에게 유익하고 재밌는 행사를 개최했으면 좋겠다(11.1%) ▲기타(7.4%)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다.

기타 항목에는 다양한 의견이 게재됐는데 주로 '총학생회와 학생 간의 소통 문제를 해결하기 바란다'는 내용이였다. 구체적으로는 '활동내역을 공개해 총학생회의 방향성을 학생들에게 보여주면 더 좋을 것 같다', '학생들의 의견을 학교 측에 전달하고 그에 대한 학교의 입장을 다시 학생들에게 전했으면 좋겠다', '학교 법인의 활동내용을 공개해 등록금이 잘 쓰이고 있는지 알려주기 바란다', '정기 간담회 참여가 부진한 학생들을 위해 이들이 학교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차기 총학생회가 '학교와 학생 간의 갈등이 발생했을 때 적극적인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고 답한 신재희(행정 3) 학생은 "총학생회는 학생들의 대표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의 의견을 수면 위로 드러내는 것 또한 총학생회의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듯, 학생들은 총학생회가 '소통'을 강화했으면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현 총학생회가 풀지 못한 학생들과의 소통 문제, 세 팀의 각 총학생회 후보는 이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지 궁금해진다.

총학생회 활동 만족도



총학생회 '참'이 바라는 제34대 총학생회

앞서 제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학생들은 현재 '총학생회가 학생들과의 소통 및 학내 사건·사고 대처에 다소 미흡했다'고 여기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학생들은 차기 총학생회에게 바라는 점으로 '더 적극적으로 학생들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했으면 좋겠다(34.3%)', '학교와 학생 간의 갈등이 발생했을 때 적극적인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25.0%)'고 답하기도 했다. 학생들이 차기 총학생회에게 이 같은 점을 기대한다는 것은 올해 총학생회가 그만큼 학생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차기 총학생회 선거를 목전에 둔 지금, 송진기(기계 4) 총학생회장은 이 같은 목소리를 어떤 심정으로 듣고 있을까? 그와 대담해보았다.

송 회장은 먼저 다수가 지적한 '소통 부족'에 대해 입을 열었다. 그의 말에 따르면, 학생들이 총학생회에게 소통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다. 16년에도, 17년에도 학생들은 총학생회의 부진한 소통에 꾸준히 불만을 표했다.

송 회장은 이러한 문제를 인식해 임기 내내 학생들과 소통하기 위해 다방면에서 노력을 기울였다. 그는 매달 정기 학생 간담회를 열어 학생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평소 대학본부와 의논한 내용도 그 자리에서 공유할 계획이었다. 휴여 소통에 참여하고 싶어도 학업 또는 아르바이트 등으로 여유가 없거나, 오프라인 참여에 부담을 느끼는 학생들을 위해 페이스북 페이지·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등 소셜 미디어를 통해 소통하고자 했다.

하지만 총학생회가 시도했던 소통 방식은 당초 학생들의 요구와는 방향이 달랐다. 학생들은 능동적으로 페이스북 페이지를 팔로우하거나, 간담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대신 학생들은 본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페이스북 페이지 '한성대학교 대나무숲'이나 '한성대학교 대신 말해주세요'와 같은 익명 커뮤니티에서 의견을 제기했다. 그리고 총학생회가 커뮤니티에 직접 댓글을 달아 그들의 물음에 답하길 원했다. 학생들은 자신이 힘들이지 않아도 총학생회가 먼저 다가와주길 바랐던 것이다.

송 회장은 "정말 학생들이 원하는 소통 방식이 무엇인지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은 감이 있었다. 이제 와서 드는 생각이지만,

자리를 마련해 놓고 학생들이 찾아오기만을 마냥 기다릴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다가갈 걸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차기 총학생회는 이런 점을 꼭 숙지해서 학생들과 원활히 소통했으면 좋겠다"며 "소통에는 정답이 없는 것 같다. 끊임없이 고민하고 고쳐나가는 것이 모범답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갈등 대처 능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송 회장은 "학생들이 어느 부분에서 불만을 이야기하는지 알고 있다. 하지만 총학생회가 대학본부 측에 입장을 표명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의견이라는 '총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총알'이 충분히 준비되어만 자신이 대학본부에 '총'을 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학생들의 의견은 쉽게 모이지 않았고, 결국 그는 학생과 학교 간의 갈등이 생겨도 중간에 끼어 모호한 태도로 일관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송 회장은 "온라인에서 익명으로 제기된 의견은 공식적인 '총알'로 사용하기 어렵다. 그래서 학생들로부터 실명으로 의견을 받으려 했는데 참여율이 저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학생들이 실명으로도 마음껏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총학생회가 앞장서 학생들의 마음을

열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뷰 말미에 "차기 총학생회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고 묻자, 송 회장은 "전대 총학생회장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받던 중 '1년만 더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을 들었다. 처음에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는데, 내가 그 입장이 돼보니 그 말이 외닿는다"며 "나도 자리에서 물러날 때 차기 총학생회장에게 같은 말을 전할 예정이다. 그들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 후회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모든 걸 한번에 바꾸려 하기 보다는 점진적으로 하나씩 개선해나가는 편이 더 현명하다. 물론, 어떤 방법을 써도 학생들을 100% 만족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도 실망하지 말고 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도전하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 또, 그 과정에서 학교에 쉽게 휘둘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송 회장은 "지난 1년간 미흡한 모습을 보여드렸다. 과오가 모두 잊히도록, 부족했던 부분을 처음부터 다시 매워 줄 수 있는 후보자가 제34대 총학생회장으로 뽑히길 바란다. 그런 후보자가 당선되면 학우 여러분이 선거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어야 한다"며 인터뷰를 마쳤다.

